

『흙』에 구현된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에 대한 연구*

송 현 호**

요약

『흙』은 허송의 이주여정을 통해 조선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도산의 정의돈수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유정한 사회 공동체인 모범촌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춘원의 용동체험과 러시아 체험이 『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흙』에 구현된 무정한 세상을 유정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보려고 했다.

『흙』에는 타락한 도시와 조선혼의 근원인 농촌의 이원적 대립구조가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벌인 브나로드운동은 식민지 수탈정책에 맞닿아 있다. 그런데 당시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하시피한 춘원이 『흙』에서 일제의 간도이주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살여울이나 검불랑에 모범촌을 만들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의 민족 자본이 해체되어 조선의 농민들은 급기야 납부여대하고 간도로 이주하거나 유리결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이 떠나간 자리에는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조선에 정착하게 되었다. 춘원은 1910년대 용동체험의 재현과 일제의 간도 이주정책의 징후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민족 자본의 해체 문제를 다시 재현해냄으로써 그 사건들이 벌어진 당대의 자리로 고정시켜놓으려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1930년을 살고 있는 작가의 정

* 본 연구는 2017학년도 아주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과 시선에 의해서 그 사건이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살여울로 돌아온 허송은 동회와 협동조합 그리고 야학회를 주도한다. 춘원은 자신이 1910년대 용동에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용동이 어떤 곳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촌은 어떤 형태의 마을인가를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 『농촌계발』에서 계속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농촌계발』은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을 집약하여 발표한 글로 동경 유학생 金一이 판사직을 버리고 金村으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인 동회를 조직하여 협동조합사업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여 金村을 문화적인 부촌인 모범촌으로 만든다. 金村은 도산이 미국에서 구상한 조선을 유정한 사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공동체지향주의, 민족우선주의, 정의돈수주의의 집약된 모범촌이며, 『흙』에 제시한 살여울이나 검불랑과 흡사한 모범촌이다. 따라서 춘원의 글쓰기가 민족계몽운동이나 유정한 사회 공동체 조성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춘원은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농촌마을을 만들어 해외 이주자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 이주담론, 무정한 사회, 유정한 사회, 도산, 정의돈수사상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농촌의 붕괴와 해외 이주민의 양산
3. 모범촌의 건설과 유정한 세상 만들기
4. 결론

1. 문제의 제기

일제 강점기 조선인들은 자신들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억압받고 차별받으면서 살았다. 춘원은 자

신이 체험한 바를 토대로 이주 조선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흙』에는 수많은 이주자들이 등장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작가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흙』은 연재 당시 수십 장의 편지를 받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한 소설이지만²⁾ 민병휘, 윤고종, 이무용, 단남생, 백철, 염상섭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³⁾ 받기도 했다. 지금까지 『흙』에 대한 연구는 민족적 지도자를 형상화한 농촌계몽소설의 효시라는 긍정적 평가와⁴⁾ 지식인의 시혜적 농민소설이라는 부정적 평가가⁵⁾ 지속적으로 대

- 1) 이연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 2015, 109-134면.
-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춘원연구학보』 8, 2015, 83-108면.
-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 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 2016, 223-256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 26-37면.
- 송현호, 『『삼봉이네 집』에 나타난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 170면.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 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북』, 2016.10, 726-735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연구』, 『韓國學報』, 2017.1, 3-29면.
-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65, 2017, 111면.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태학사, 2017, 13-110면.
- 송현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 67, 2017.9, 5-30면.
- 2) 『이광수문학전집』 3, 우신사, 1979, 286면.
- 3) 최혜림, 『춘원 이광수 연구사 목록』, 『춘원연구학보』 1, 2008, 384-385면
- 4) 윤홍로, 『이광수문학의 연구사적 반성』,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II70-II83.
- 이주형, 『흙의 시대인식과 미의식』,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I74-I90.

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윤홍로의 『흙』과 민족갱생력』과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은 춘원이 오산학교 교사시절의 용동 체험을 바탕으로 쓴 『농촌계발의견』(『대한인정교보』 9, 1914.3.1), 『모범촌』(『대한인정교보』 11, 1914.6.1), 『용동』(『학지광』 8, 1916.3.4.), 『농촌계발』(『매일신보』, 1916.11.2-1917.2.18) 등이 어떻게 『흙』(『동아일보』, 1932.4.12 -1933.7.10)에 수용되고 있는가를 추적한 논문으로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흙』은 춘원이 자신의 용동체험과 러시아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춘원은 용동 체험을 바탕으로 용동이 어떤 곳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촌은 어떤 형태의 마을인가를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 『농촌계발』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도산이 조선을 유정한 사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모범촌을 살여울과 김블랑에 구체화하고 있다. 도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한 연설이나 강연에서 공동체지향주의, 민족우선주의, 정의돈수주의를 내세운 바 있다. 강연과 연설에서 주장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한 글이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

구인환, 『귀농의식과 전향적 현실』, 『서울사대논총』 23, 1981, 93-111면.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서울, 1999, 557-559면.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서울, 2003, 339-480면.

권보드레, 『《학지광》 제8호, 편집장 이광수와 새 자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412-422면

윤홍로, 『『흙』과 민족갱생력』, 『춘원연구학보』 2, 2009, 47-102면.

윤홍로,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 『춘원연구학보』 3, 2010, 9-69면.

정하늬, 『이광수의 『흙』에 나타난 투사적 지도자상 연구』, 『춘원연구학보』 10, 2017, 199-236면.

- 5) 송유, 『일제하의 한국휴머니즘 비판 : 이광수 작 『흙』의 의미와 무의미』, 『동아문화』 5, 1966.

조남철, 『일제하 한국농민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86.

김병광, 『『흙』과 『고향』의 대비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89.

최갑진, 『1930년대 농민소설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93.

이대규,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4.

이명우, 『한국농민소설의 사적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97.

회-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라는 논설문이다.⁶⁾ 춘원은 도산의 강연을 듣고 조선인의 해외 이주를 막고 조선에 유정한 사회 공동체인 모범촌을 조성하기 위해 『흙』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춘원의 용동체험과 러시아 체험이 『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흙』에 구현된 무정한 세상을 유정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보려고 한다.

2. 농촌의 붕괴와 해외 이주민의 양산

『흙』은 허송의 결혼을 둘러싼 사랑의 갈등과 농촌 이주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흥미를 자아내고 있는 소설이어서 연애 소설이나 지식인의 농촌계몽소설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설의 중심서사를 1910년대에서 20년대 초의 춘원의 이주서사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흥미로운 사건들 속에 용해시켜 감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락한 도시와 조선혼의 근원인 농촌의 이원적 대립구조가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떠나야만 했는가? 도시나 해외로 이주했던 조선인들이 왜 조선의 농촌으로 귀향할 수밖에 없었는가? 일제의 수탈정책에 동조한 것이라면 조선인의 간도 이주를 유도하지 않고 왜 조선의 농촌에 모범촌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이러한 화두를 따라가다 보면 춘원이 『흙』을 집필한 의도가 드러난다.

일제는 만주 괴뢰 정부를 수립한 이후 농민개척단 명목으로 수많

6)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 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 『동광』, 1926.1, 29-30면.

은 조선인들을 간도로 강제 이주시켜 1930년대에 간도 이주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⁷⁾ 그런데 1931년부터 1934년까지 전개한 브나로드운동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던 춘원이 살여울이나 검블랑에 모범촌을 만들려고 한 것은 총독부의 간도 이주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춘원이 아베 미츠이에의 후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포들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여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편이었음이 드러난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자신들이 오랫동안 일구어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낯선 곳으로 이주하여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허송이 경험한 도시와 도시인들은 일제와 야합한 타락한 사람들이 살던 공간이었고, 그가 고학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의 수탈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송은 동네에서도 잘 산다는 말을 들던 집이었다. 송의 아버지 겸은 옛날 평양 대성학교 출신으로 신민회 사건이니, 북간도 사건이니, 서간도 사건이니, 만세 사건이니 하는 형사 사건에는 빼놓지 않고 걸려들어서 헌병대 시절부터 경무총감부 시절부터 붙들려 다니기를 시작하여 징역을 진 것만이 전후 팔년, 경찰서와 검사국에 들어 있던 날짜를 모두 합하면 십여 년이나 죄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지나간 세월에 옥바라지를 하고 나니, 가산이 말이 못되어 송의 학비커녕 집을 보전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겸은 남은 논마지기, 밭날갈이를 온통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저당한 토지만 잃어버리고 횡감에 술만 먹다가 어디서 장질부사를 묻혀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송의 누이동생 하나도 죽고, 송의 한 몸뚱이만 탕그렇게 남은 것이다.⁸⁾

7) 송현호, 『「삼봉이네 집」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181면.

8) 『이광수전집 3』, 우신사, 1979, 15-16면.

허승의 아버지 허겸은 여유롭게 살던 지식인이지만 당대의 현실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제에 저항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이다. 선비가 빈궁을 면하기 위해 장사를 하려고 금융조합에 저당을 잡혔다가 남은 전답마저 빼앗기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진 정황이 적나라하게 서술되고 있다. 허승의 집이 몰락한 것은 아버지의 무능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시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갑오경장 이후에야 글이나 양반이 다 쓸 데가 없어 ‘이 동네도 점점 쇠퇴하’게 되었다.⁹⁾ 일제는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그리고 노일전쟁을 거치면서 인천에 미두장을 설치하고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¹⁰⁾ 조선의 민족 자본을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그에 대한 정황을 작가는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오륙 년 전만 해도 대개는 제 땅에 모를 내었다. 비록 제 땅이 없더라도 지주에게 반을 갈라 주더라도 그래도 반은 제가 먹을 것이었다. 그러나 사오 년 내로는 점점 지주들이 소작인에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품을 사서 농사짓는 버릇이 생겼다. 품이란 한량없이 있는 것이었다. 하루에 이십 전 삼십 전만 내어 던지면 미처 응할 수가 없을 이 만큼 품꾼이 모여들었다. 이십 년 내로 돈이란 것이 나와 돌아 다니면서, 차란 것이 다니면서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전에 없던 것이 생기면서 어찌되는 심을 모르는 동안에 저마다 있던 땅 마지기는 차차 차차 한두 부자에게로 모이고, 예전 땅의 주인은 소작인이 되었다가 또 근래에는 소작인도 되어 먹기가 어려워져서 혹은 두 번 소작인(한 사람이 지주에게 땅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또 소작인에게 빌려 주고 저는 그 중간에 작인의 등을 쳐먹는 것, 마름도 이 종류지마는 마름 아니고도 이런 것이 생긴다)이 되고 최근에 와서는 세력 없는 농부는 소작인도 될 수가 없어서 순전히 품팔이만 해 먹게 되는 사람이 점점 늘

9) 위의 책, 16면.

10)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의 이주 담론 연구』, 18-19면.

어가는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자주들이 모두 평양이니 서울이니 하고 살기 좋은 곳에 가 살고 보니 누가 귀찮게끔 일일이 성명도 없는 소작인과 낱낱이 응대를 할 수가 있다. 제가 믿는 놈 하나에게 맡겨 버리고 받아들일 만큼 해마다 받아만 들인다면 그런 고소한 일이 어디 있으랴. 신참 사는 아직 큰 부자는 못되어서 기껏 읍내에 가서 살지마는 그 까닭에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 토지를 직영을 하여서 소작 문제니 농량 문제니 하는 귀찮은 문제를 해결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신 참사 한 사람이 자기의 귀찮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 살여울에서 밥줄 떼운 가족이 이십 여 호나 된다.¹¹⁾

허승의 회상을 통해 드러난 예전의 살여울 사람들은 조상들이 가꾸고 이루어놓은 터전에서 피땀을 흘려 일하면서도 미래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다. 한 평이라도 농사지를 땅을 늘리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간을 하고 농토를 일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재산을 늘려가면서 비교적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상이 피땀 흘려 일군 땅은 이제 그들의 소유가 아니다. 무슨 회사, 무슨 은행, 무슨 조합, 무슨 농장으로 불리는 일본과 일본인의 땅이 되었다. 이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난과 굶주림뿐이다. 모두가 떠나고 남은 사람들마저 삶의 의욕을 상실한지 오래되어서 생기를 잃고 죽은 듯 침체되어 있다. 게다가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읍내까지도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주요한 자리도 대부분 일본인들의 독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승의 조상들이 - 아마 순의 조상들과 함께 개척한 것이다. 그 나무들을 다 찍어 내고 그 나무뿌리를 파내고 살여울 물을 대느라고 보를 만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피와 땀을 섞

11) 『이광수전집 3』, 우신사, 1979, 62-63면.

어서 갈아놓은 것이다. 그 논에서 나는 쌀을 먹고, 승의 조상과 순의 조상이 대대로 살고 즐기던 것이다. 순과 순의 뼈나 살이나 피나 다 이 흙에서, 조상의 피땀을 섞은 이 흙에서 움돋고 자라고 피어난 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논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승이나 순의 집 것이 아니다. 무슨 회사, 무슨 은행, 무슨 조합, 무슨 농장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승의 고향인 살여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뿌리를 끊긴 풀과 같이 되었다.

--- 중략 ---

긴 장마를 겪은 초가집들은 마치 긴 여름 일을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 축 늘어졌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도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렇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에 부대끼고, 벼룩 빈대에 부대끼고, 빛에 졸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멍개는 것이다.¹²⁾

읍내 한 오백 호 중에 이백 호 가량은 일본 사람이요, 면장도 일본 사람이었다. 읍내에 들어서면서 제일 높은 등성이에 있는 양철지붕 한 집이 아사히라는 창루다. 이것은 승이가 어렸을 적부터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큰 집은 군청, 경찰서, 우편국, 금융조합, 요릿집 등이었다. 보통 조선 사람 민가는 태반이 다 초가집이었다.¹³⁾

허승이 살여울에 귀향하여 처음 목격한 농촌의 풍경이다. 타락한 도시에서 살다가 돌아온 고향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다. 조상들이 일군 땅, 조상들이 피땀 흘려 가꾸어온 땅은 이제 일본인들의 땅이 되었거나 일본인 앞잡이들의 땅이 되어 있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대필만 해주면 될 것으로 알았던 고향은 이미 예전의 고향이 아니었다. 조선인들이 살

12) 위의 책, 17-18면.

13) 위의 책, 82면.

고 있는 초가집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양철지붕 집이나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건물들과 대조를 이루면서 을씨년스런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허승은 조선의 농촌에서 동심이나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길고긴 '여름 일을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 축 늘어져 있고, 초가집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속도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뎠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에 부대끼고, 벼룩 빈대에 부대끼고, 빗에 졸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뭉개는 것이' 무덤이나 지옥을 연상할 정도다.

“저 집 속을 들어가면 말야, 담벼락에는 빈대가 뚫지, 방 바닥에는 벼룩이 뚫지, 땃국이 흐르는 옷이나 이불에는 이가 뚫지, 여름이 되면 파리와 모기가 뚫지, 게다가 먹을 것이나 있다던가. 호좁쌀 죽거리도 없어서 풀뿌리, 나무껍질을 먹고 사네그려…….”¹⁴⁾

농촌에 의사가 있느냐. 가난한 농촌의 병은 현대의 의사에게는 학위논문 채로로밖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이다. 그 병을 고치려면 돈이 나오지 아니한다. 농촌에서 도시에 있는 의사 하나를 데려오자면 오막살이를 다 팔아 넣어야 하지 않는가. 자동차 밍시오, 진찰료시오, 약값입시오, 이렇게 돈 많이 드는 의사를 청해다 보느니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편안한 일이다. 그렇다고 의사도 현대에는 병 고치는 것은 수단이요 돈벌이가 목적이거늘, 돈 안 생기는 농촌 환자를 따라다니라는 것은 실없는 소리다. 국비로 하는 위생 설비조차, 위생 경찰조차 도시에 하고 남은 여가애나 농촌에 미치는 이때 여든. 만일 한 도시의 수도에 들이는 경비를 농촌의 우물 개량에 들인다 하면 몇 천 동네의 음료를 위생화 할는지 모르지 않느냐.

14) 위의 책, 51면.

이리하여 농촌사람은 병 많고, 일찍 늙고, 사망률 높고, 어린 애 사망률이 더욱 높고, 그들의 일생에 땀을 흘려서 모든 사람의 양식과, 모든 문화의 건설비용을 대면서도 자기네는 굶고, 자기네는 문화의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¹⁵⁾

구더기 움질거리는 된장도 집집마다 있는 것이 못 된다. 모래알 같은 호렘도 집집마다 있는 것은 못 된다. 이렇게 참혹한 것을 먹고 나서 어슬어슬하여 오면 모기가 아우성을 치며 나오고, 곤한 몸을 방바닥에 누어 잠이 들 만하면 빈대와 벼룩이 침질을 한다. 문을 닫자니 찌고, 열자니 모기가 덤비지 않느냐. 아아 지옥 같은 농촌의 밤이여!¹⁶⁾

조선인들의 삶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가난이 일상화되어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을 일깨워준다. 타지로 이주하지 않고 고향에 남은 조선인들은 희망도 잃고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생명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춘원은 왜 농촌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이토록 사실적으로 서술한 것일까? 춘원은 왜 1930년대에 1910년대의 용동체험이 유일한 농촌의 문제를 다시 재현해 낸 것일까? 신문 연재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실들을 끌어온 것일까?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 브나로드운동을 총지휘하던 그가 간도가 아닌 살여울과 검불랑을 모범촌으로 설정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1920년대에 만주에 이상촌을 건설하려고 했던 도산이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 것과 춘원이 조선에 모범촌을 건설하려고 한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당시 총독은 왜 브나로드운동을 금지시킨 것일까? 이들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2년 도산이 춘원과 주요한에게 거사 자금을 보내 경성의 수양동맹회와 평양

15) 위의 책, 81-82면.

16) 위의 책, 110면.

의 동우구락부 발족을 지시하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상촌을 건설하여 실력양성과 인재 육성을 기도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¹⁷⁾

춘원은 조선인의 해외 이주와 농촌의 붕괴를 아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의 해외 이주가 일상화되고 조선의 민족 자본이 해체된 당대에 현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은 과거의 재현과 당대의 징후를 포착하는데 머물지 않고 전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⁸⁾ 1910년대 용동체험과 러시아 이주체험의 재현과 일제의 북간도 이주정책의 징후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춘원은 『흙』에서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민족 자본의 해체 문제를 다시 재현해냄으로써 그 사건들이 벌어진 당대의 자리로 고정시켜놓으려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1930년을 살고 있는 작가의 정신과 시선에 의해서 그 사건이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3. 모범촌의 건설과 유정한 세상 만들기

1910년 남강 이승훈은 고향 용동을 문중의 마을로 만들려다가 도산의 조언으로 오산학교를 세우고 조선의 이상적인 모범촌을 만들려고 했다. 용동은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동회 조직이 만들어지고, 민족교육과 애국운동이 전개된 곳이다.¹⁹⁾ 1910년 오산학교에서 교원생활을 하던 춘원은 남강의 인정을 받아 그의 고향인 ‘용동에서

17) 주요한, 『안도산전서』, 삼중당, 1963, 400면.

18)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14면.

19) 윤홍로, 『『흙』과 민족갱생력』, 53-55면.

야학과 동회 일에 헌신'한 바 있다.

춘원은 1907년 2월 대한유학생회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린 도산의 애국연설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²⁰⁾ 용동 체험과 러시아 이주체험을 통해 모범촌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그는 1914년 블라디보스토크와 치타에서 생활하면서 러시아 이주 노동자들에게 1910년 용동에서 체험한 동회와 협동조합 그리고 야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자신이 1910년대 용동에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용동이 어떤 곳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촌은 어떤 형태의 마을인가를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 「농촌계발」에서 계속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농촌계발」은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을 집약하여 발표한 글로 동경 유학생 金一이 판사직을 버리고 金村으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인 동회를 조직하여 협동조합사업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여 金村을 문화적인 부촌인 모범촌으로 만든다.²¹⁾ 金村은 도산이 미국에서 구상한 조선을 유정한 사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공동체지향주의, 민족우선주의, 정의돈수주의의 집약된 모범촌이며, 『흙』에 제시한 살여울이나 검블랑과 흡사한 모범촌이다. 논설적 서사문이 소설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 「농촌계발」과 소설 『흙』은 양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사구조나 인물 설정 그리고 서술 의도에 있어서 유사성이 많다.

『흙』에서 허승은 모범촌을 만들기 위해 무한한 희생정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허승의 설정은 도산의 무저항주의와 정의돈수주의(情誼敦修主義)에 영향 받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도산은 우리 사회가 무정한 사회라고 진단하고 무정한 사회를 유정한 사회로 만

20) 이광수, 『이광수전집』 8, 우신사, 1979, 502면.

21) 이광수, 「農村啓發」, 『이광수전집』10, 우신사, 1979, 62-96면.

들려면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외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정의돈수(情誼敦修) 문제를 결코 심상(尋常)히 볼 것이 아니외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개조하자면, 먼저 다정(多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²²⁾

여기서 정의란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다. 친애가 ‘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써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동정은 ‘어머니가 아들이 당하는 고(苦)와 낙(樂)을 자기가 당하는 것같이’ 여기는 마음이다. 도산은 인류 가운데 ‘가장 불행하고 불상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 같고 화원에 있는 것 같’지만, ‘무정한 사회는 큰 가시밭과 같아 사방에 괴로움뿐이므로 사람은 사회를 미워하게’ 된다고 했다.²³⁾ 도산이 생각하는 모범촌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정을 느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다. 바로 모범촌이 유정한 사회 공동체의 모델이다.

도산은 1923년 독립운동 근거지 및 이민자들을 위한 이상촌 건설을 구상하였고, 1924년 북중국 화북지역과 만주 방면을 답사하고 1927년에는 ‘만주 길림 방면에서 이상촌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다니기도’ 했다. 본보기 모범촌을 통해 ‘도산의 평소의 교육 철학에 의거하여 농촌 생활 내지 농촌 도시 생활의 표본을 만들려고’ 했다. ‘모범 부락과 직업학교를 각 도에 두어 전국 한 면에 한 사람씩 선발하여’ 교육을 하여 그들이 돌아가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한다면²⁴⁾ 농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민족주의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22) 안창호,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情誼敦修의 의의와 요소』, 『동광』, 1926.1, 29-30면.

23) 위의 글, 30면.

24) 윤홍로, 『『흙』과 민족쟁쟁력』, 85면.

춘원은 『흙』에서 자신이 1910년 용동에서 체험한 동회와 협동조합 그리고 야학회를 허송이 살여울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도산이 1900년대부터 즐기치게 주창한 정의돈수사상과 유정한 사회 조성사업을 한민교 선생이 실천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허송이 만난 한민교 선생은 ‘조선과 조선 사람을 생각하여 저를 희생하고 하는 일이면, 그리하여 그것을 동일한 이데올로기와 동일한 조직 하에서 하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당시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부패하고 마비된 양반계급에서 갇힌과 같이 활기있고 양심있는 청년을 찾은 것을’ 아주 기뻐하였다.²⁵⁾ 한민교 선생은 도산이나 남강의 이미지를 지닌 인물로 작품에서는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

한 선생의 이름은 민교다. 그는 한민교라는 그 이름이 표시하는 대로 조선 청년의 교육 지도로 일생의 사업을 삼은 이다. 그는 일찍 동경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정칙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역사, 정치, 철학 이러한 책을 탐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와서는 그러한 조선 사람이 많은 경로를 밟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만주에도 가고, 교사도 되고, 예수교인도 되었다. 그가 줄곧 교사 노릇을 하기는 최근 십년간이다.²⁶⁾

허송은 한민교 선생의 초청을 받고 선생의 집에 갔다가 초청받은 청년들이 하나같이 ‘조선과 조선 사람을 생각하여 저를 희생하고 하는 일들을’ 토로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조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한다. 그것은 더 이상 타락한 도시에서 힘겹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여울로 돌아가서 농민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 선생의 조선주의가 허송으로 하여금 ‘조선 민족의 뿌리요,

25) 『이광수전집 3』, 우신사, 1979, 30면.

26) 위의 책, 26면.

줄거리 되는 농민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보다 안락한 백성을 만들자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것이다.²⁷⁾ 허승은 한민교 선생을 통해 조선의 이상과 희망 그리고 조선 청년의 사명을 발견한다.

농민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몸만 가지고 가자. 가서 가장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서 살면서, 가장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재소, 면소에도 대신 다녀 주고, 그러면서 글도 가르치고, 소비조합도 만들어 주고, 뒷간, 부엌 소제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²⁸⁾

살여울로 돌아온 허승은 동회와 협동조합 그리고 야학회를 주도한다. 춘원이 『흙』을 집필하게 된 배경을 엿볼 수 있는 것들로, 춘원이 용동에서 했던 일들이 허승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촌 만들기 사업은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일 수 없어서 지주나 당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도산의 무저항운동에 바탕을 둔 농촌계몽운동이고 유행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모범촌 조성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주나 당국의 일방적인 탄압이 있을 뿐 소작인들이나 농민들과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프로문학과 대비해서 지식인의 관념소설로 치부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 인식의 차이가 아니라 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²⁹⁾

27) 위의 책, 45면.

28) 위의 책, 30면.

29) 1931년 『동광』에 발표한 『여의 작가적 태도』에서 춘원은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사실주의 청년시대에 청년의 눈을 떴는지라 내게는 사실주의적 색채가 많다. 내가 소설을 '모시대의 모방면의 충실한 기록'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 중략 — 내 의도가 그것들의 충실한 묘사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흔히 내 작품 중에 나오는 인물들의

허승은 기본적으로 살여울 사람들이 순박한 사람들이지만 배운 게 없고, 가진 자들의 착취와 이용만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허승은 자신의 진의를 이해하고 동조하는 아내에게 농촌으로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다음과 같이 아내에게 말해 준다.

살여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오. 그 사람들은 다 제 손으로 벌어서, 제 땀으로 벌어서 밥을 먹고 밤낮에 생각하는 일도 어떻게 하면 쌀을 많이 지을까, 어떻게 하면 거름을 많이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마를 많이 짜서 어린 것들 설빔을 해 줄까, 집에 먹이는 소가 밤에 출지나 아니한가, 아침에는 콩을 많이 두어서 맛나게 죽을 쑤어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다오. 서울 사람들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힘 안 들이고 돈을 많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저 계집을 내 것을 만들까, 저 사내를 내 것을 만들까, 이런 생각은 할 새가 없지요. 나는 살여울이 그림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은 살여울 가서 정직하게 부지런히 검박하게 땀 흘리고 남을 위하는 생활을 할 생각이 아니나오?³⁰⁾

허승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동회를 만들어 한 주일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과 모여서 동네의 소소한 일들을 의논한다. 또한 모임 때마다 쌀을 가져와서 저축하고, 집에서 만든 짚신과 새끼를 저축하는 일을 일상화해서 소비조합을 활성화한다.³¹⁾ 동네 아이들을 교육하

무위 무기력함을 조소하는 비평을 들었거니와 그러한 비평을 들을 때에 나는 혼자 고소를 불금한다. 왜 그런고 하면 내가 유위 유기력한 인물을 그리려던 의도가 무위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그 비평이 아프기도 하련마는 내가 그리려던 의도가 정히 그러한 무위 무기력한 인물이었으니까, 비평가들의 조소는 도리어 내 작품 중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니 내가 고소 아니하고 어찌하라.(송헌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22면에서 재인용.)

30) 위의 책, 171면.

31) 위의 책, 241면.

고 지도하기 위해 선회의 지원을 받아 유치원을 건립하였다.³²⁾ 동회를 만들고 소비조합을 운영하고 유치원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일들은 지주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당국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다.

살여울의 유정근은 마을 유지의 아들로 허송이 마을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반감을 가지며, 맹한갑에게 허송과 유순의 관계를 모함하여 살인사건을 유발한다. 또한 거짓 정보를 주재소에 알려 살여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다. 허송 일행을 연행한 주재소 소장은 선희에게 유치원을 왜 하느냐고 다그치고, 기생이 무슨 유치원을 하느냐고 모욕을 주기도 한다. 허송에게는 ‘협동조합 총회에서 네가 이렇게 해야만 우리 조선 사람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하려면, 조합을 만들고, 조선 사람끼리 잘살아야 된다는 공동 목적으로 단결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고 말한 것’³³⁾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한다. 허송은 자신의 조선주의나 민족의식은 숨기고 살여울 사람들을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농민들이 야학을 세우고 조합을 만들고 하는 것은 순전히 문화적, 경제적 활동이지, 거기 아무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믿소. 또 촌 농민들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을 바가 아니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 보겠다고 하는 농민의 노력을 죄로 여긴다면, 그야말로 농민으로 하여금 반항할 길밖에 없게 하는 것이오.³⁴⁾

허송의 진심이 무엇이었던 일본 경찰의 눈으로 보면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농민을 선동하여 협동조합과 야학회를 조직’한 것이 분명

32) 위의 책, 227면.

33) 위의 책, 261면.

34) 위의 책, 261면.

하였다. 허승은 ‘치안유지법 위법으로 징역 오 년, 백선희가 공범으로 삼 년, 석작은갑이가 삼 년, 맹한갑이가 상해치사,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오 년의 징역 언도를’ 받는다. 살여울을 위하고 조선을 위해 한 일이어서 일본인들이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들이 항의한다고 공정한 심판을 할 리도 없다고 생각하여 모두 ‘일제히 공소권을 포기하고 복역’하였다.³⁵⁾ 허승이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출옥한 작은갑이 관용과 사랑을 보여준 것은 도산의 무저항주의와 정의돈수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유정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허승과 작은갑의 행동에 감복한 유정근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모범촌 건설에 매진하게 된다.

나는 그동안 지은 죄가 많습니다. 첫째로 옳은 사람을 모함했고, 그밖에도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갑군 때문에 눈을 떴습니다. 작은갑군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마는 작은갑군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작은갑군은 내게는 재생 지은을 주신 이입니다. 동네 여러 어른들께도 지은 죄가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내가 철이 안 나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로부터서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살여울 동네가 조선에 제일 넉넉하고 살기 좋고 문명한 동네가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³⁶⁾

살여울에 살고 있는 조선 청년들의 살신성인과 무저항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신뢰하고 정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범촌 건설 사업은 성공적이며, 또 다른 모범촌 건설 사업으로 이어진다. 모범촌 건설 사업에 부정적이었던 유정근까지도 ‘전 재산을 내어놓아서 농촌 운동을 하게 되며, ‘조선에 이런 독지가가 열 분만 나기를’³⁷⁾ 바란다

35) 위의 책, 265면.

36) 위의 책, 278면.

37) 위의 책, 285면.

는 말이나 『흙을 끝내며』에서 밝힌 서술은 작가의 모범촌 건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살여울이 참으로 재물과 문화를 넉넉히 가진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김갑진이가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검불랑이 살여울과 같이 잘되고, 온 조선에 수없는 살여울과 검불랑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믿습니다.³⁸⁾

이처럼 춘원은 동아일보에 『흙』을 연재하면서 조선 민족의 삶의 터전인 농촌에 모범촌을 만들어 더 이상 조선의 농민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 허승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살여울로 돌아가게 한 것은 춘원이 이상적인 농촌마을을 만들어 해외 이주자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이를 확산하여 유정한 세상을 만들어 국력을 키워나가려는 도산의 정의돈수사상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도산이 모범촌을 전국에 조성하려고 했던 생각이 허승을 통해 ‘온 조선에 수없는 살여울과 검불랑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서술되고 있다. 허승의 조선주의와 애국사상은 한민교 선생에게 영향 받은 바 크다. 한 선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조선의 역사와 조선 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밤 화제는 신라의 화랑도에 이르렀다. 신라 진흥왕 때에 민기가 점점 쇠잔하고 백제와 고구려의 침노가 설 날이 없을 때에 왕은 육흥방국(나라를 일으키고자)의 목표로 인재 배양, 인재 등용의 기관을 삼기 위하여 단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신을 기초로 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 원화를 삼고 삼백여 명의 청년을 모아 율음으로 서로 갈고, 노래와 풍악으로 서로 기꺼하게 하며 산과 물에 노닐어 즐기어 인재를 고르고 인재를 훈련하게 하여 어질고 충성된 신하와 재주 있고 용기

38) 위의 책, 286면.

있는 장졸이 여기서 나게 하였으니 그들은.³⁹⁾

『흙』을 1910년대 러시아에서 쓴 일련의 글들을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춘원의 글쓰기가 민족계몽운동이나 도산의 유정한 사회 공동체 조성 및 정착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춘원은 연해주와 치타에 머물면서 조선이주자들의 열악한 삶을 목도하고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모범촌을 생각하게 되고, 조선인의 해외 이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다.⁴⁰⁾ 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이주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조선 총독부의 간도 이주정책에 반하는 국내 이주지인 모범촌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조선에 모범촌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춘원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검열을 의식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⁴¹⁾

허승은 왜 살여울에 모범촌을 세우려고 한 것일까? 살여울로 표상되는 조선의 북방 농촌은 민족 영웅들이 지켜온 곳이다. 물론 그것은 살여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의 땅은 수많은 외세의

39) 위의 책, 160면.

40) 춘원은 「한인 아령 이주 오십 년에 대하여」에서 '제 나라가 부강하여 약하고 어두운 나라를 다스릴 차로 이주함은 늘어나는 이주요, 제 나라를 빼앗기고 이족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쫓겨 가는 이주는 줄어드는 이주니 우리 민족의 오늘날 이주는 이러한 이주라. 늘어가는 이주에는 영광과 복락이 따르고 줄어드는 이주에는 수치와 천대와 고생이 따르나니 우리는 지나간 50년에 실로 이 부끄럽고 불쌍한 생활을 하여 왔도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65면에서 재인용.)

41) 1910년대 러시아와 중국에 이주하여 살 때는 민족의식을 노출한 글쓰기를 하였으나 1920년대에 귀환한 이후에는 검열을 의식하여 민족의식을 감추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송현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15-23면.) 또한 1931년 『동광』에 발표한 「여의 작가적 태도」에서 춘원은 '내가 소설을 쓰는 근본 동기도 여기 있다. 민족의식, 민족애의 고조, 민족운동의 기록, 검열관이許하는 한도의 민족운동의 참미,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선동, 이것은 과거에만 나의 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나의 일생을 통한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글, 23면에서 재인용.)

침략과 국난에도 민족 영웅들과 백성들에 의해 굳건히 지켜진 곳이다. 임진왜란과 같은 상황에서도 백성들이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 지켜낸 땅이다.

읍내는 여기저기 옛날 성이 남아 있었다. 문은 다 헐어버리고 사람들이 돌맹이를 가져가기 어려운 곳에만 옛날 성이 남아 있고 총구명도 남아 있었다. 이 성은 예로부터 많은 싸움을 겪은 성이었다. 고구려 적에는 수나라와 당나라 군사와의 여러 번 싸움이 있었고, 그 후, 거란, 몽고, 청, 아라사, 홍경래 혁명 등에도 늘 중요한 전장이 되던 곳이다.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이런 분들이 다 이 성에 자취를 남겼다. 일청, 일로 전쟁에도 이 성에서 통탕 거러 지금도 삼사 년 묵은 나무에도 그 탄환 자국이 흠이 되어서 남아 있는 것을 본다. 마치 조선 민족이 얼마나 외족에게 부대졌는가를 말하기 위하여 남아 있는 것 같은 성이었다.⁴²⁾

이것은 1920년 2월 17일 독립신문에 발표한 「독립군가」에서 제시한 생각과 유사하다. 춘원은 『흙』에서 분명 「독립군가」의 주요내용을 한민교 선생의 입을 빌어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다. 다만 양만춘 을지문덕 이순신 임경업⁴³⁾ 대신, 을지문덕 양만춘 선조대왕 홍경래를 거명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조상이 물려준 땅을 일본인들이 점거하고 있는 현실을 춘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왜 조선인들의 땅을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었는가? 일제의 민족 자본 해체과정에서 조선인들이 가난하고 굶주린 삶을 살게 되었고, 우민화정책에 의해 조선인들이 서로 반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유정한 사회가 유지되어 농민들이 해외 이주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이었다. 때

42) 『이광수전집 3』, 우신사, 1979, 82면.

43)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40면

문에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을 집약하여 발표한 「농촌계발」은 양식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사구조나 인물 설정 그리고 서술 의도에 있어서 『흙』과 유사성이 많으며, 「농촌계발」을 발전시켜 『흙』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춘원은 용동체험과 러시아 체험을 바탕으로 조선 농민의 해외 이주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조선에 유정한 사회의 모델인 모범촌을 조성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흙』은 허승의 이주여정을 통해 조선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도산의 정의론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유정한 사회 공동체인 모범촌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춘원의 용동체험과 러시아 체험이 『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으며, 『흙』에 구현된 무정한 세상을 유정한 세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도산의 정의론사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밝혀보려고 했다.

『흙』에는 타락한 도시와 조선혼의 근원인 농촌의 이원적 대립구조가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서술되고 있다. 동아일보에서 벌인 브나로드운동은 식민지 수탈정책에 맞닿아 있다. 그런데 당시 브나로드운동을 주도하다시피한 춘원이 『흙』에서 일제의 간도이주정책에 순응하지 않고 살여울이나 검블랑에 모범촌을 만들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의 민족 자본이 해체되어 조선의 농민들은 급기야 남부여대하고 간도로 이주하거나 유리걸식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이 떠나간 자리에는 일본인들을 이주하여 조선에 정착하게 되었다. 춘원은 1910년대 용동체험의 재현과 일제의 간도이주정책의 징후를 통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조선인의 이주문제와 민족 자본의 해체 문제를 다시 재현해냄으로써 그 사건들이 벌어진 당대의 자리로 고정시켜놓으려는 노력에서가 아니라, 1930년을 살고 있는 작가의 정신과 시선에 의해서 그 사건이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살여울로 돌아온 허승은 동회와 협동조합 그리고 야학회를 주도한다. 춘원은 자신이 1910년대 용동에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용동이 어떤 곳이었고, 자신이 생각하는 모범촌은 어떤 형태의 마을인가를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 『농촌계발』에서 계속적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있다. 『농촌계발』은 『농촌계발의견』, 『모범촌』, 『용동』을 집약하여 발표한 글로 동경 유학생 金一이 판사직을 버리고 金村으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인 동회를 조직하여 협동조합사업과 생활개선운동을 전개하여 金村을 문화적인 부촌인 모범촌으로 만든다. 金村은 도산이 미국에서 구상한 조선을 유정한 사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제시한 공동체지향주의, 민족우선주의, 정의돈수주의의 집약된 모범촌이며, 『흙』에 제시한 살여울이나 검블랑과 흡사한 모범촌이다. 따라서 춘원의 글쓰기가 민족계몽운동이나 유정한 사회 공동체 조성의 실패를 확인한 수 있다. 아울러 춘원은 이 작품에서 이상적인 농촌마을을 만들어 해외이주자들을 농촌으로 유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이광수 전집』 3,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6,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7,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8,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10, 우신사, 1979.
『이광수 전집』 별권, 우신사, 1979.

2. 단행본

-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사』, 솔, 2003, 339-480면.
김영민,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정』, 소명출판, 2005.
김원모, 『영마루의 구름』, 단국대출판부, 2009.
김원모, 『자유꽃이 피리라』, 철학과현실사, 201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①』,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②』, 한길사, 1986.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③』, 한길사, 1986.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1984.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태학사, 20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하타노 세츠코, 최주한 역,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Jacques-Marie-Émile Lacan, Livre XXIII: Le sinthome 1975-1976. Paris: Seuil, 2005.

3. 논문

- 구인환, 「귀농의식과 전향적 현실」, 『서울사대논총』 23, 1981, 93-111면.
권보드레, 『《학지광》 제8호, 편집장 이광수와 새 자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9, 412-422면

- 김병광, 『『흙』과 『고향』의 대비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89.
- 서은혜, 『이광수의 상해, 시베리아행과 『유정』의 자서전적 텍스트성』, 『춘원연구학보』 9, 2016, 223-256면.
- 송옥, 『일제하의 한국휴머니즘 비판:이광수작 『흙』의 의미와 무의미』, 『동이문화』 5, 1966.
- 송현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춘원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67, 2017, 5-30.
- 송현호, 『한국현대문학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인문학적 연구』, 『제4회 세계인문학포럼희망의 인문학 프로그램북』, 2016.10.
- 송현호, 『『무정』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국현대소설』 54, 2017.3, 105-128면.
- 송현호, 『『삼봉이네 집』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춘원연구학보』 9, 2016.12, 165-188면.
- 송현호, 『춘원의 『사랑인가』에 나타난 이주담론의 연구』, 『韓國學報』, 2017.1, 3-29면.
- 송현호, 『춘원의 이주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1, 2016.6, 23-42면.
- 윤홍로, 『『흙』과 민족갱생력』, 『춘원연구학보』 2, 2009, 47-102면.
- 윤홍로, 『춘원의 용동체험과 글짓기 과정』, 『춘원연구학보』 3, 2010, 9-69면.
- 윤홍로, 『이광수의 치마에서의 체험과 그의 작품배경』, 『어문연구』 10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3, 219-235면.
- 이대규,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 전북대박사학위논문, 1994.
- 이명우, 『한국농민소설의 사적 연구』, 동국대박사학위논문, 1997.
- 이연홍, 『『유정』에 나타난 이주와 ‘정(情)의 연구』, 『춘원연구학보』 8, 2015, 109-134면.
- 이주형, 『흙의 시대인식과 미의식』,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 1981, 174-190.
- 정하늬, 『이광수의 『흙』에 나타난 투사적 지도자상 연구』, 『춘원연구학보』 10, 2017, 199-236면.
- 조남철, 『일제하 한국농민소설 연구』, 연세대박사학위논문, 1986.
- 최갑진, 『1930년대 농민소설 연구』, 동아대박사학위논문, 1993.
- 최선호, 『『무정』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춘원연구학보』 8, 2015, 83-108면.

<Abstract>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and a heart-warming society realized in 『SOIL』

Song, Hyun-Ho

『SOIL』 plainly reveals the reality of Chosun through Heo Sung's discourse of migration and materializes construction of a model village of a social community, which can realize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This study examines how Chunwon's experience in Yong Dong is reflected in 『SOIL』 and how the effort to change the heartless society and tragic reality portrayed in 『SOIL』 into a heart-warming society is associated with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In 『SOIL』, the dual opposition structure of the fallen city and the rural area, which is the origin of Chosun spirit, is closely related to the migration of Chosun people. The V narod movement by Dong-A Ilbo is in line with the colonial exploitation policy. It is noteworthy, however, that Chunwon, who led the V narod movement at the time, attempted to build a model village in Salyeowool or Geomblang without conforming to the Japanese colonialism policy in 『SOIL』. The national capital was dissolved, farmers set out on a wandering life, migrated to Gando or wandered around begging for food. Where Chosun people left, Japanese moved and settled in Chosun. Chunwon raised a question on how to create a righteous and peaceful world through Yong Dong experience and Japanese policy for migration to

Gando in 1910s. By re-addressing the issues of migration of Chosun people and dissolution of the national capital, it was not an effort to fix the events of the day, but to allow the events to be reinterpreted by the spirit and view of the writer who lived in 1930.

While Chunwon was teaching at Osan School, he was committed to night school and local community affairs. Therefore, when Chunwon is a teacher at Osan school, he thinks that a series of writings based on the experience of Yong Dong and the experience of migration in Russia is linked with 『SOIL』, which can raise objections to the claim that 『SOIL』 is an ideal novel for enlightenment of the farmers.

Through Han Mingyo and Heo Sung, Chunwon actualized construction of a model village, a heart-warming society that can realize Dosan's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Heo Sung returned to Salyeowool and led local community affairs, cooperative union and night schools. This shows how Chunwon began to write 『SOIL』; it shows actual cases of creating a model village based on Yong Dong experience. However, since it is a rural movement based on non-resistance movement, it may be considered as an ideal novel by an intellect, but it comes from different views on art.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writing written in Russia in the 1910s, 『SOIL』 shows that Chunwon's writing matches the movement for the national enlightenment and heart-warming society. A model village project for heart-warming society by Chosun youth in Salyeowool was a success, which led to another model village construction project. Heo Sung left everything behind him to return to Salyeowool because Chunwon intended to create ideal farming villages to attract migrants and by spreading the movement, it matches Dosan's idea to grow the national power.

Key words: discourse of migration, heartless society, heart-warming society, Dosan, idea of enlightenment of friendship

투 고 일 : 2018년 1월 18일 심 사 일 : 2018년 1월 30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